



‘다르마 법우회’ ‘금강메아리’ ‘풍경소리’ 등 “이름만 봐도 단체특성 알죠”

업무 특성 살린 아이디어 각양각색 바라밀 특급·달리는 법당 등 애칭도

있다. 또 지하철 문서포기에 앞장서고 있는 풍경소리는 철로를 달리는 지하철 소리를 풍경소리로 치환시킨 재치가 돋보인다. 이 같이 단체특성을 살린 이름 짓기는 자연스런 단체 홍보는 물론, 신규회원 확보에도 효과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직장은 소속 기관명으로, 직능은 불교용어로= 이름 짓기 유형은 근무 조건, 직업 특성 등에 따라 제각기 다르다. 직장불자회의 경우, 소속 기관의 이름을 사용해 00시청 불자회, △△구청 불신회, ##은행 불교회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직능불자회의 경우는 일반적인 불교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무료진료활동을 벌이는 선재마을의료회, 무료 투약봉사를 펼치는 불자약사보러회, 불자 보조인 모임인 서초반야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직능 불자회는 딱딱하고 무거운 이미지의 이름보다는 단체가 지향하는 이념을 표현한

불교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다른 직장·직능불자회에서는 연등, 보련, 다보, 문수, 금강, 법우, 법륜, 법등, 감로 등의 불교용어를 주로 쓰고 있다.

●달리는 법당은 별명이 더 유명= 바라밀 특급·철도청불교단체연합회(이하 철불협),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 한국온전사불자연합회, '어둠에 광명을' 전적인불자연합회 등은 고유 이름보다 따라붙는 별명이 더 유명하다. 특히 2000년에 창립한 철불협은 정찬연 사무국장이 처음 '바라밀 특급'이라는 애칭을 제안,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불교용어와 철도의 이미지를 합친 이 애칭은 '가장 빠르고 편안한 열차처럼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자'는 철불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불련 또한 86년 창립 초부터 줄곧 '달리는 법당'이란 애칭으로 불자운전기사의 사명과 긍지를 표현하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전국의 직장·직능불자회는 5백여 곳.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불자회에서부터 갓 태어난 새내기 불자회까지 다양한 면모를 띠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자회의 이름 또한 평범한 것부터 눈길 끄는 이름, 거기에 더해 자의반타의면 따라붙는 별명까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직장불심'을 담아내기 위해 직장·직능불자회는 어떠한 이름을 달고 있는지, 그 유형들을 살펴본다.

●단체의 특성을 백분 살린다= 판·검사, 변호사를 배출하는 예비법조인들의 마지막 배움터인 사법연수원 '다르마 법우회'. 이 단체는 '붓다의 법과 세속법, 이 두 개의 법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한다. 세속법(law)과 불법(Dharma)의 한글이 법(法)인 것에 착안한 절묘한 작명이라 할 만하다. 서울 조계사 및 노인복지센터에서 연 2회 무료 법률상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다르마법우회는 단체 특성을 담아낸 이름으로 내담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금강메아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서울불교산악회도 마찬가지다. 이름에서부터 산을 좋아하는 불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우리불자회는요

선재마을의료회

우리 불자회는 목탁을 치지 않습니다. 정기법회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진기와 주사기를 들고 진료봉사를 할 뿐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의료봉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료봉사를 성별의 방편으로 여깁니다. 우리들의 진료는 곧 불회요. 진료소는 수행처이기 때문입니다. 이 훌륭한 도량에서 우리는 오늘도 아픈 이들에게 모든 정성을 바칩니다.

선재마을의료회. 우리 불자회의 이름입니다. 창립은 99년 5월 부처님오신날에 했습니다. 그 해 불, 온나라는 IMF의 거센 물결로 깊은 나락으로 가라앉았던 시기였지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불자 의료인들의 고민이 시작됐어요. 긴 고민 끝에 몇몇 의사가 동지게 했습니다. 초대회장을 맡았던 내과전문의 강경

수도 165회나 됩니다. 이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서울역 노숙자 진료소도 3천여 명 가까운 노숙자에게 무료진료혜택을 전해 드렸지요. 이곳 이외에도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노숙자 쉼터 화엄동산을 비롯해 김포 외국인 노동자 인권센터, 서울노인복지센터 등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마다하지 않고 어디든 달려갑니다. 이 같은 우리 의료회의 꾸준한 활동은 2000년부터 3년 연속 서울시장참여사업 민간단체로 선정되는 가 하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 자원봉사 단체상까지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선재마을의료회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료회의 원은 원대하기 때문이죠. 전국의 모든 사람에 무료진료소가

외국노동자 1만1천·노숙자 3천명 진료

올해 도솔암·청량사·불락사서 순회 진료



◇선재마을의료회가 지난 2일 서울 봉은사내 '작은병원'에서 무료진료 접수를 받고 있다.

구 불자님을 비롯해 양재수, 김경현 불자님들이 주축이 돼 선재마을의료회의 문을 열게 됐지요. 지금은 의사 34명, 치과의사 27명, 간호사 44명, 한의사 2명, 일반 자원봉사자 등 총 120여명의 선재보살들이 자비인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료진료 봉사 활동은 2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창립부터 줄곧 매주 일요일 오전에 진료봉사를 하고 있는 서울 봉은사 외국인 노동자 진료소, 그리고 2001년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서울역 노숙자 진료소입니다. 올해 5년차 사업으로 들어간 봉은사 외국인 노동자 진료소의 경우, 진료 환자 수만 1만 1천여 명이 넘었고, 진료회

들어서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쉬지 않을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죠. 봉은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서울역에서는 노숙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전국 순회 진료 활동도 떠납니다. 2월에는 경북 성주 두메산골 도솔암을, 4월엔 경북 청량사를, 11월엔 구례 불락사를 찾아 자비인술을 펼칠 겁니다.

나는 만큼 사랑도 커진다죠. 자비행을 실천하면서 깨닫게 되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이타행을 실천하는 참보살이 되도록, 우리 의료회 직원들은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754-01-0085-071 예금주 여오숙)

■여오숙 간호사

상반기중 언론사 불자 파악

언론사 불자련·조계종 포교원·기획실 간담회

언론사불자연합회(회장 김진평, 이하 연합회)는 10일 서울 조계사 인근 식당에서 조계종 포교원과 총무원 기획실과 함께 신년간담회를 열고, 올 상반기에 언론인불자 현황 파악 사업을 공동으로 착수하는 등 언론인 포교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하는 언론사 불자들과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교계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언론인 포교의 중요성을 감안해 미장립 언론사의 불자회 창립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연합회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서울방송, 경향신

문 불교연구회 대표자들은 △회원 언론사 확대 △회원사별 간사 중심의 연합회 운영 등 연합회 출범 첫해 2대 사업기조를 설명하고, 종단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연합회의 사업 계획과 관련, 언론인불자 현황 파악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 이외, 연간 또는 분기별로 간담회를 정례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방송언론인 연수회의 프로그램을 한층 다양하게 개발해, 신규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철우 기자

우리 모임에선

공불련, 22~23일 지회 총무단회의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는 22~23일 이틀간 충북 충주 한전 수안보연수원에서 제1차 전국지회 총무단 회의를 개최한다. 공불련은 이날 회의에서 공불련의 사업계획과 발전방안 등을 논의한다.

우리는행 서울 불자회, 법회 활성화 워크숍

우리는행 서울 불자회(회장 정진호)는 7~8일 1박2일간 경기도 남한강콘도에서 불자회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회원 2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에서 불자회는 법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국불자교정인연 안양지회, 자광원 방문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안양지회 안양교도소 성불회(회장 유성민)는 지난달 25일 성남 무의탁 치매노인 요양시설 자광원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했다. 30여 명이 동참한 성불회 회원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맑은 정성, 맑은 햇살로 빛낸 금강경매주 불사

금강경 독송회에서는 참서리가 내려앉은 음력 10월이던 매운 매주를 만들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매주 불사를 합니다. 금강경 불 매주는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금강경 7독과 정진을 하면서 손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정진과 공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불 매주는 100% 우리농산물로 만들며, 쌀을 갈아 찐 다음, 찐 쌀과 바닷물, 그리고 향토로 만든 흙집에서 40일간 자연발효 시킨 전통 무궁해 매주입니다. 해마다 드셔보신 분마다 맛과 특색이 그 때로 매이어서 아주 좋다고 하십니다.

●매주 주문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세요.
참기름과 된장(죽임), 고추장, 조림간장, 국간장, 분말매주도 언제든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H·P 011-203-6667, 019-820-5587
포항 054)261-2231 / 서울 02)742-0172 / 부산 054)514-3566 / 대구 053)425-3063
울산 052)245-0337 / 대전 042)862-8638 / 창원 055)299-5419 / 수원 031)253-2677
군산 063)452-7852 / 광주 062)681-3268 / 강릉 033)642-0987

단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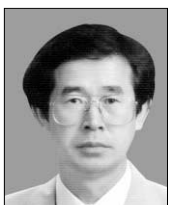
이학주교법사 초청 법회
김주호 국립서울병원 불자회장은 10일 별관 소아청소년진료소 2층 종교활동실에서 명성여고 이학주 교법사 초청, 정오법회를 봉행했다.



대한중석조경 석불회, 정기총회
김종목 대한중석조경 석불회장은 7일 대구 분사 식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02년도 사업결산 및 신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초보심자경문' 교리강좌
박우락 성복승무사무소 법우회장은 18일 오후 6시 서울 노원구 기원사에서 주지 상현 스님으로부터 <초보심자경문> 강의를 듣는다.



초심자에 '기초교리' 강좌
김종목 대한 유성구청 불자회장은 15일 오후 2시 유성구 구암사에서 주지 복천 스님으로부터 초심자를 위한 기초교리강좌를 듣는다.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3 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학과	인도불교·중국불교·한국불교·불교개론·불교미술·선종사상·밀교·포교방법론·근본불교·대승불교·화엄사상 등 18과목
한문학과	산가귀감·한문법(1)·한문법(2)·장자·주역·논어·금강경·법화경·화엄경
불교미술학과	① 불화 1(단청), ② 선화(달마도) ③ 불화 2, ④ 불화 3(이론과 실기)
우리춤학과	우리춤, 승무, 복과장단
팔리어학과	팔리어문법·팔리어강독

불교학과

· 정규반(100명), 주간반(50명), 통신반(50명)

팔리어학과 (3월 7일 개강)

부처님 경전에 대한 보다 깊은 학습을 위해 새로이 팔리어학과 문법·강독반을 개설합니다.

[팔리어(2003년도) → 티베트어(2004년도) → 산스크리트어(2005년도)]



최종남교수(승가대)

- 불교한문학과 (3월 6일 목요일) 오후 7시 개강
- 팔리어학과 (3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개강
- 불교미술학과 (3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개강
- 우리춤학과 (3월 5일 수요일) 오후 4시 개강

●본 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우)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불교지도자과정 (3년)

2003 학년도

법사과정 불교대학원 신입생 모집

과목	요일	개설경전	교수	비고(개설과목)
불교학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한문경전)	법화경(1)	박종	법화경(1)(2)(3)(4), 화엄경(1)(2)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산스크리트·팔리어경전)	숫타니파타 1	전재성	숫타니파타, 아함경, 팔천승반야경
능엄경학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능엄경 보경소(2)	송찬우	능엄경(1)(2)(3)(4)(5)(6)
근본불교학과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근본불교 (수행론 37조도품)	최봉수	근본불교(1)(2)(3) - (6)(7)(8) 금강경, 법화경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① 불교대학(경구) 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2003년 2월 1일~ 2003년 2월 28일(금) [서류전형]

- 3. 개강일시 ● 불교학과: 2003년 3월 3일(월) 오후 7시 ● 근본불교학과: 2003년 3월 6일(목) 오후 4시 ● 능엄경학과: 2003년 3월 4일(화) 오후 2시
- 4. 입학금 일십만원
- 5. 특전 졸업자는 법사자격 수여(불교교육단체연합회 법사교시를 거쳐)
- 6. 원서문의 교부·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